

8월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80.35 (+32.73)	873.18 (+9.81)
금리 (연-달러)	환율 (원-달러)
3.271 (-0.050)	1319.80 (-11.10)

“정부 일방적 정책 의료체계 혼란”  
의대교수들 시국선언 02



## DX 중심 클라우드 보편화... 보안 인식은 세계 최하위

(디지털 전환)

초대형 빅테크기업 MS, 해킹 피해 카스퍼스키, 대기업 해킹사태 보고 팬데믹 후 DX 따른 데이터 양 증가 韓클라우드 구축, 글로벌 30% 상회 보안 중요성에도 인식은 매우 낮아

클라우드 기술이 기업과 개인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IT 보안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양의 증가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은 보안 인식 수준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10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대형 빅테크 기업 또한 뒤늦게 해킹 사실을 발견하는 등 보안 위협을 겪고 있다. 클라우드는 온라인 상에서 서버, 저장공간, 데이터베이스 등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필요에 따른 자원의 유연한 확장과 접근이 가능하며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아 최근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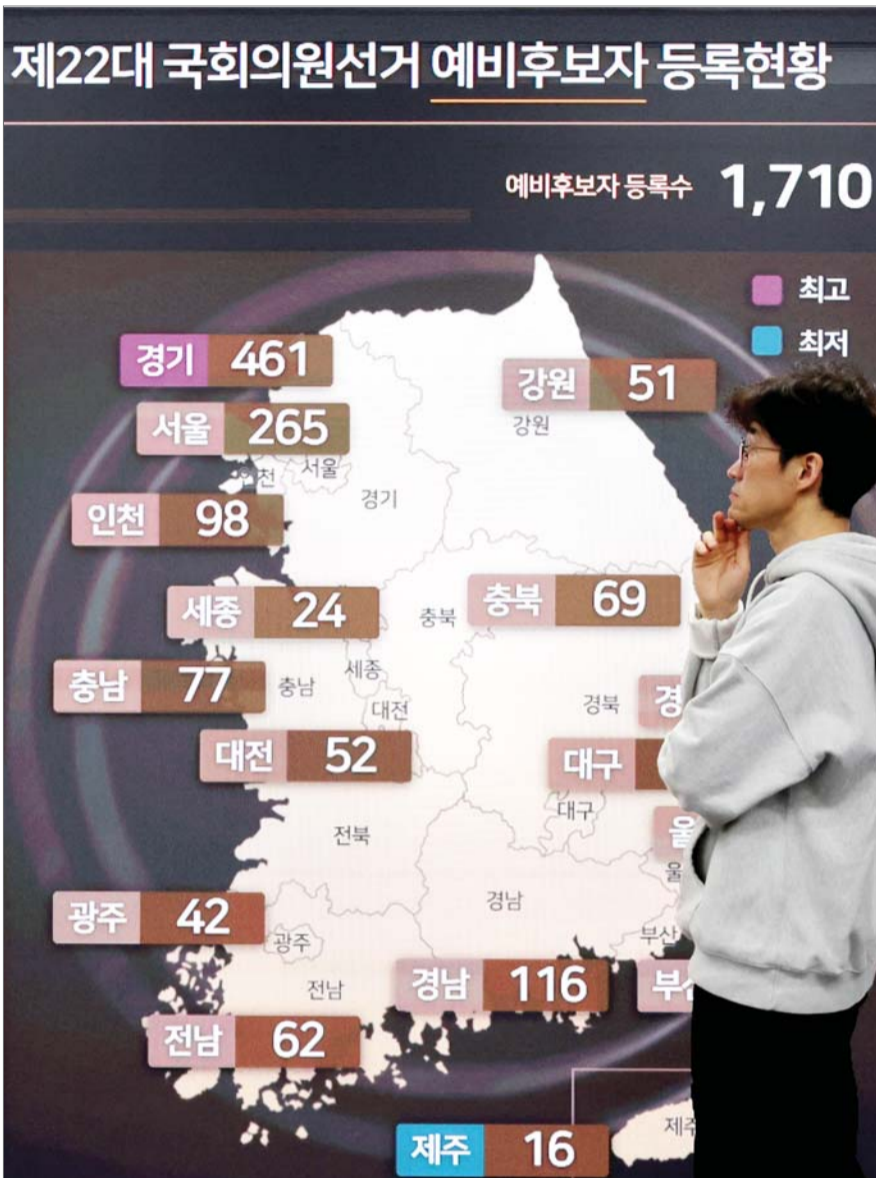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8월 2023년 11월 해킹 조직 미드나잇 블리자드(Midnight Blizzard-Cozybear)가 단단계 인증을 이용하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계정들에 침투한 후 계속해 해킹을 시도하고 성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침투 사실은 1월에 처음 확인됐으며 보안 시스템 강화 후인 2월에도 이메일 계정 침투와 내부 시스템 액세스가 확인됐다. 거대 빅테크 기업의 해킹 사실이 발표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트는 하루 사이 주가가 1% 이상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탈취된 정보와 침해 규모에 대한 언급은 침묵했다.

글로벌 보안기업 카스퍼스키 랩(Kaspersky Lab)은 같은 날 합법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QEMU를 활용해 악명의 대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해킹 사례를 보고했다. 이미 해킹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다른 터널링 소프트웨어와 달리 QEMU를 이용한 사례는 첫 보고다.

QEMU는 여러 하드웨어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해 개발·관리를 용이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기업들에 큰 인기를 끄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에뮬레이터다. 카스퍼스키는 “QEMU에 특정 옵션을 설정해 폐쇄적인 기업 네트워크 호스트를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 호스트로 네트워크 터널을 설정할 수 있었고 해당 호스트가 클라우드에서 실행 중인 해킹 조직의 서버에 곧장 연결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카스퍼스키 측은 기업이 악명을 요구함에 따라 구체적인 탈취 정보에 대해 함구했다.

최근 나타나는 보안 위협은 전자 기기의 발전과 이에 따른 클라우드 활성화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대두된 디지털 전환이 클라우드 구축을 가속화하고, 클라우드 접속에 고성능화 한 개인의 전자기기가 활발히 이용되며 더 늘고 있다. VM웨어에 따르면 한국의 클라우드 환경 구축 속도는 전세계 조직 평균을 30% 상회한다. 반면 한국의 디지털 보안 인식 수준은 많은 설문조사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확인된다.



제22대 총선 한달 앞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시스

노드VPN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별 개인 정보 보안 인식 테스트 결과에서 한국인의 온라인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은 175개국 중 최하위권이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반감기 한 달 앞둔 비트코인... “앞으로 더 간다”

과거 반감기와 다른 상승 패턴 보여 현물 ETF 수요처 확보·반감기 기대

반감기(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를 한 달 앞두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7만 달러를 돌파해 향후 전망에 관심이 집중된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급등했다. 최고가 경신 후 곧바로 6만8000달러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8일(현지시간) 7만199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처음 7만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월 6만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2021년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29개월 만에 경신했지만 3일 만에 다시 최고가를 찍었다.

7만 달러를 돌파한 후 비트코인 가격은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서 한때 6만6000달러선이 위협받기도 했지만 추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만8000달러까지 회복했다.

28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 5일에도 14% 급락하며 6만달러까

지 추락 후 다시 상승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거 반감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감기는 4년마다 오는 것으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 비트코인 생산이 적어짐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2012년, 2016년, 2020년)에서는 반감기 전후엔 비트코인 가격이 큰 움직임이 없었다. 오히려 반감기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반면 이번에는 반감기를 앞둔 시점부터 상승세가 펼쳐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터치한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기존 ‘반감기 효과’는 반감기가 지난 이후 비트코인 신규 발행량이 줄어 들면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선반영 효과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라는 대규모 수요처가 확보된 영향이 크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社告  
메트로경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들의 아낌찬 도전을 기다립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정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AI(인공지능)앵커를 활용한 동영상, yap TV와 제휴를 통한 서울 시내버스 내 뉴스 제공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과 융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2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미디어 역사를 새로 쓸 인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1. 신입 취재기자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 (기사 작성 및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 ④ 우대사항
        -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2면에 계속)



## 뉴스터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당 ‘경선 기간 중 금지 행위’ 투표권 유한 안호영·신정훈 의원에 ‘경고’  
▲ 이재명, SNS에 “나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 /사진 뉴스시스

▲ 민주당 노웅래 의원, 당 결정 승복하고 불출마 선언  
▲ 여야 총선 표 경쟁으로 장밋빛 공약 쏟아져... ‘포폴리즘’ 지적도



▲ 이준석 대표, ‘채상병 사건’ 이종섭 장관 출국금지 해제 비판 /사진 뉴스시스  
▲ 의료 공백 속 군병원 찾은 민간인 189명 달해